

이차전지

Sector Issue Brief

2026. 8. 14

Check Point

- 글로벌 및 북미 ESS 생산량
- 북미 ESS 제조사별 출하량
- 북미 OEM, ESS 경쟁사로 부상

OEM, 고객사에서 경쟁사로

| Analyst 정경희 | khchung@ls-sec.co.kr

2Q26 실적에서 두드러진 OEM의 ESS 포함 배터리 전략

2분기 실적에서 특히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OEM사들의 ESS 포함 배터리 계획 나와

GM의 경우 미국 배터리 스타트업인 'Peak Energy'와 Sodium-ion 배터리를 활용한 ESS 사업 추진. CEO인 메리 T. 바라는 Sodium-ion 이 장기적으로 LFP보다 비용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원재료인 나트륨이 풍부한 자원이고 설계 단순화를 장점으로 언급. '27~28년 생산 검증 셀 확보 및 '30년내 20~28GWh 상업생산 진입 목표. 이를 자동차용으로 적용 가능하며, 차량용 기술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 기존 EV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반면, JV파트너와 배터리 공급망 규모 축소하여 대규모 신규 배터리 공장을 직접 건설하기보다 Peak Energy와 협력을 통해 자본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선택.

TESLA는 Megapack 3 생산 개시, 배터리 셀 생산 확대. 리튬 정제 및 양극재 정제 시설 가동 등 셀부터 소재, ESS까지 밸류 체인 전반 Capa 확대를 추구하는 것으로 밝힘. 산업용 ESS에서 경쟁 심화로 ASP가 하락하고 있지만 AI DC 등 전력 수요에 대응해 생산능력 확대 계획. 장기적으로 에너지 사업 마진이 현재 대비 약 절반 수준에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

폭스바겐의 배터리 사업은 PowerCo 중심 Capa 확대가 핵심. 다만 배터리 사업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Material Cost를 낮출 여지가 크다고 강조. 단순 Capa 확대보다 원재료·셀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 CEO 올리버 브롬은 그룹 2030 전략에서 ESS를 미래 성장 중요 영역중 하나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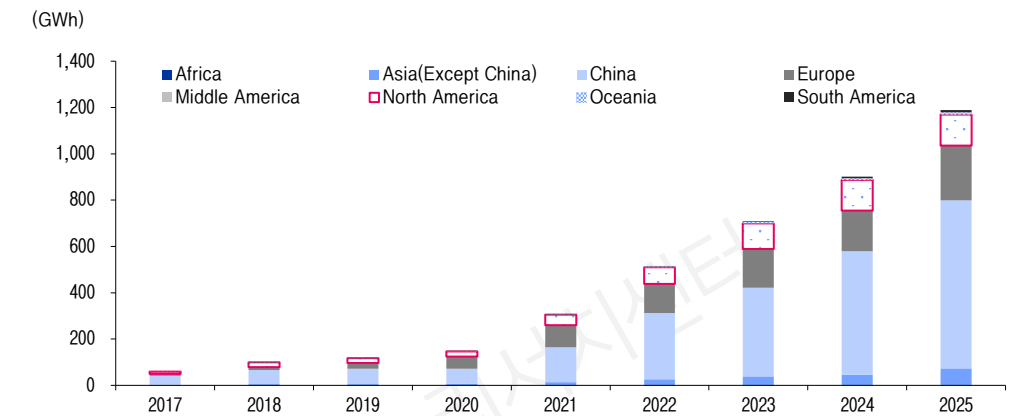
포드는 짐 팔리 CEO가 Ford Energy 중요성 강조. '27년말 20GWh 생산 능력 목표로 추가적인 Capa 상향 가능, 궁극적으로 북미 주요 ESS 제조사 중 하나로 성장하겠다는 계획. Kentucky One 공장 활용해 생산능력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Prototype 시설 존재한다고 설명. BlueOval SK JV 매각 등 EV관련 투자를 조정하는 동시에 Rod Energy에 추가 투자를 통해 자체 배터리 생산, 특히 ESS 투자를 강화하는 모습

북미 ESS 비중국간 경쟁 증가

1H26 출하량 기준 북미 ESS에서 중국 M/S는 최소 70%, 최대 75%(기타사 포함)로 추산됨.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상반기 북미에서 약 42GWh 생산, 수입량 약 34GWh로 추산. 수입량의 대부분이 중국 ESS로 예상되며, 일부 미국내 생산량도 중국 제조사 비중 포함. FEOC와 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미 ESS 시장에서 70~75%의 높은 중국 M/S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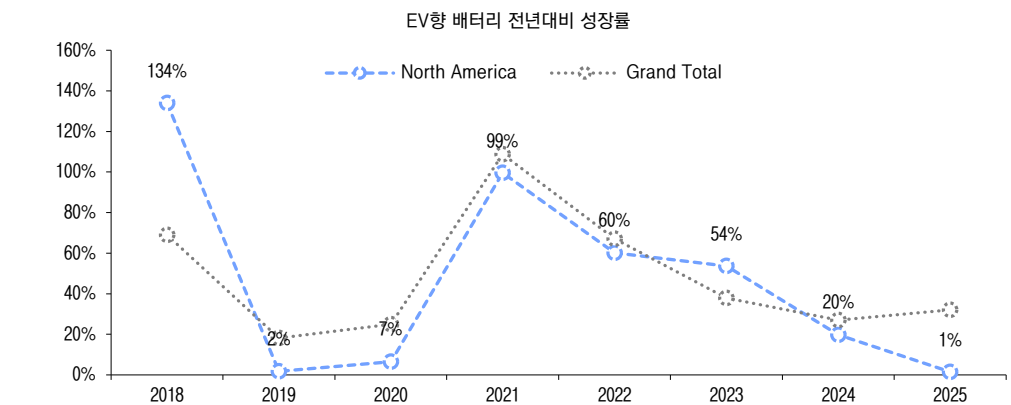
이에 더해 기존 EV용 배터리 고객이던 OEM들의 ESS향을 포함한 배터리사업 진출은 북미 ESS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

그림 1 지역별 EV 향 배터리 탑재량(연간)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글로벌 vs 북미 EV 향 배터리 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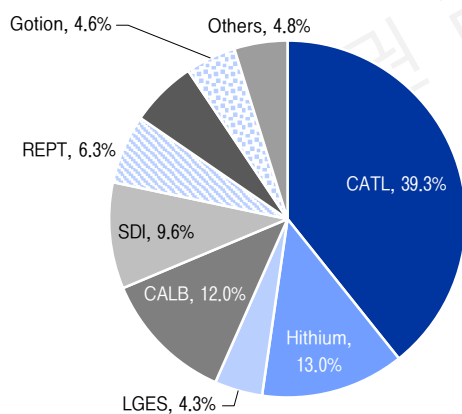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표1 2분기 실적발표에서 주요 OEM들의 배터리 관련 내용들

일자	기업	발언자	내용
07월 21일	GM	메리 바라 (CEO)	Peak Energy와 Sodium-ion 기반 ESS 개발 추진 Sodium-ion의 LFP 대비 비용 경쟁력과 원재료 측면의 장점을 강조, 2027~28년 생산 검증 셀 생산 및 2020년대 말 이전 양산을 목표
		폴 제이콥슨 (CFO)	EV 수요 변화에 맞춰 JV 파트너와 배터리 공급망 규모를 조정 중 Peak Energy 협업을 통해 대규모 자체 공장 투자보다 자본효율적인 배터리 기술 확보를 추진
07월 23일	Tesla	일론 머스크 (CEO)	Megapack 3 생산을 준비 중이며, 배터리 셀 증산 및 리튬·양극재 정제시설 가동을 통해 배터리 공급망 내재화 확대 AI 데이터센터·전력망 안정화에 따른 Megapack 수요 증가 전망
		바이바브 타네자 (CFO)	2Q26 ESS 설치량 13.5GWh(+53% QoQ) 기록 건조한 수주잔고와 데이터센터·전력화 수요에 대응해 ESS 생산능력을 확대 중, 2026년 초 LFP 공장 가동 시작
07월 24일	Volkswagen	올리버 블루메 (CEO)	그룹의 2030 전략에서 Energy Storage를 미래 성장 기술 영역 중 하나로 제시
		아르노 안틀리츠 (CFO)	PowerCo의 Salzgitter 셀 공장 Ramp-up과 Valencia 및 St. Thomas 공장 건설 지속
07월 28일	Mercedes-Benz	올라 칼레니우스 (CEO)	배터리 사업 관련 직접적인 신규 전략 언급은 제한적 2세대 BEV 판매 증가 및 하반기 EV 생산 확대 계획을 언급
07월 29일	Ford	제임스 D. 팔리 (CEO)	Ford Energy를 ESS 핵심 성장사업으로 육성하며, 2027년 말 연간 20GWh 생산능력 목표, 추가적인 Upside도 가능하다고 언급 LFP Prismatic Cell 기반 20ft Container ESS를 공급하고 기존 생산시설을 활용해 CAPA 확대 추진
		셰리 하우스 (CFO)	BlueOval SK 배터리 JV 재편/처분 관련 일회성 비용을 반영하는 한편, Ford Energy 및 차세대 EV 사업에 추가 투자를 진행할 계획
07월 31일	Rivian	RJ 스캐린지 (CEO)	Amazon EDV용 기존 Standard Battery Pack 외에 대용량 배터리팩과 AWD를 적용한 신규 모델을 개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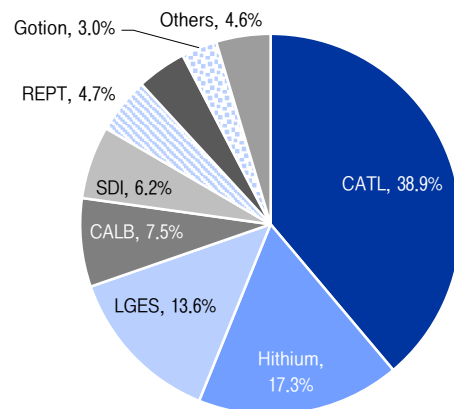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1H25 북미 ESS 회사별 출하량



자료: SNE Research,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1H26 북미 ESS 회사별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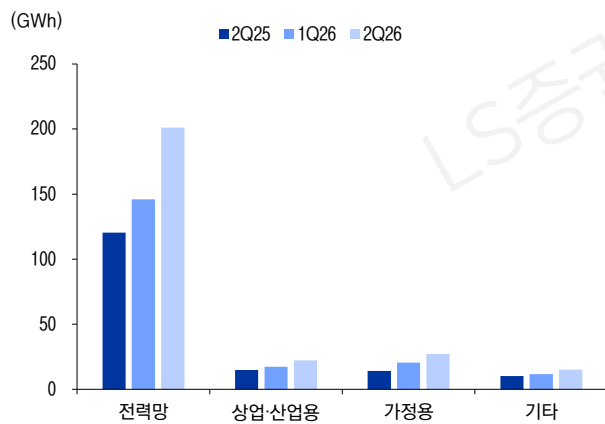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LS증권 리서치센터

표2 2Q26 용도별 ESS 출하량

용도별	1Q25	2Q25	1Q26	2Q26	QoQ(1Q26)	YoY(2Q25)
전력망	85.0	120.5	145.9	201.1	38%	67%
상업·산업용	10.0	14.9	17.3	22.3	29%	50%
가정용	6.7	14.2	20.6	27.1	32%	91%
기타	8.2	10.1	11.7	15.2	30%	50%
합계	109.9	159.8	195.5	265.8	36%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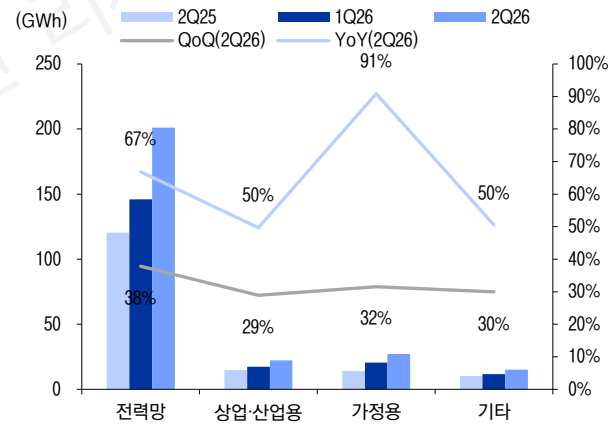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SDI EV 향 배터리 지역별 비중('25년)



자료: SNE Research,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SDI EV 향 배터리 지역별 비중('26년 5월)



자료: SNE Research, LS증권 리서치센터

삼성SDI 목표주가 추이

(원)

주가

목표주가

800,000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24/08

25/02

25/08

26/02

26/08

투자 의견 변동내역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리율(%)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리율(%)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2024.12.03	커버리지 제외										
2025.03.04	신규	정경희									
2025.03.04	Hold	195,000원	-1.8	7.7							
2025.03.17	Hold	165,000원	13.0	19.2							
2025.04.03	Hold	160,000원	2.3	11.0							
2025.07.04	Hold	159,000원	7.0	66.9							
2026.02.23	Hold	346,000원	1.4	31.8							
2026.04.29	Hold	618,000원	9.7	12.5							
2026.05.12	Hold	593,000원	-3.9	5.8							
2026.06.05	Hold	531,000원	-15.0	-4.5							
2026.07.07	Hold	419,000원	-14.4	-0.1							
2026.07.31	Hold	402,000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정경희).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 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90.3% 9.7%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 의견 비율은 2025. 7. 1 ~ 2026. 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